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22. 3. 17.(목) 총 4매(본문3, 참고1)		
국토교통부	철도투자 개발과	담당자	·과장 오송천, 사무관 윤상원, 주무관 강성수 ☎ (044) 201-3966, 3980		
국가철도공단	광역민자 철도처	담당자	·처장 이종범, 부장 신현일 ☎ (042) 607-3381, 3382		
	수도권광역사업단	담당자	·단장 허진효, 부장 김동문 ☎ (02) 788-5003, 5291		
보도일시		2022년 3월 1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8.(금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진접선 개통,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.

-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진접선(당고개~진접) 14.9km 연장...3개역 신설
- 평일 출퇴근 시간대 10~12분간격 운행 · 진접~서울역 52분 소요

□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.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.

○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·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,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,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

□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**총사업비 1조 4,192억 원** 규모의 사업으로 **'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'15년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** 개통하게 되었다.

*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은 '18년 착공하여 '26년 완공 예정

○ 진접선은 대부분 터널구간(12.8km, 86%)으로 건설되어 **도시 간 연결성**을 높였고, 남양주 주거지구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**별내별가람·오남역·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적재적소에 신설**하였다.

○ **열차운영**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**서울교통공사**에서 수행하고, **역사운영**은 **남양주 도시공사**가 담당하게 된다.

□ 진접선이 개통되면, 남양주 **별내·진접지구**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**정시성 높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**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남양주 신도시의 **교통환경과 정주여건**이 크게 **향상**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에 더해, LH는 '26년 말 목표로 **풍양역(가칭) 신설**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입주예정인 남양주 **진접2지구(1만호), 왕숙1지구(5.3만호)** 입주민도 **교통개선 효과**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그간 남양주 주민들은 **출·퇴근시간 국도47호선**에서 **상습적인 교통정체**를 경험해왔고, **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시간뿐만 아니라 배차간격도 다소 길어 불편함**을 겪어왔다.

○ 진접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양주 진접역에서 서울도심(서울역 기준)까지 **출퇴근시간 기준 버스 대비 68분, 승용차 대비 18분 단축된 52분**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.

○ 아울러, **출퇴근시간에는 10~12분 간격**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**출·퇴근시간대 편의가 증대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 개통 前·後 시간단축 효과 >

이동구간	개통 전 (출·퇴근 시간대)	개통 후
① 당고개~진접	버스 1시간 / 승용차 30분	⇒ 진접선 열차 15분 (버스 대비 △45분, 승용차대비 △15분)
② 서울역~진접	버스 2시간 / 승용차 70분	진접선 열차 52분 (버스 대비 △1시간 8분, 승용차 대비 △18분)

* 당고개~진접 배차간격 : 버스 → 20~30분 / 열차 → 혼잡시간대 10~12분, 그 외 20분

-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“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진접선을 필두로 GTX-B 노선, 별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고, 이번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대의 서막을 여는 첫 사례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앞으로도 정부는 남양주를 비롯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윤상원 사무관(☎044-201-39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진접선 복선전철 사업 노선도

